

定平君派世譜發刊辭

定平君派宗親會長 永植

우리 林氏는 東方의 大姓으로서 文章·道學과 節義·忠烈에 빛나는 祖上을 모시고 京鄉各地에서 赫赫하게 雄據해온지 千餘年 悠久한 歷史를 자랑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우리 平澤貫은 太宗의 淵源을 繼繼承承하여 모든 面에서 大主流로 堂堂한 門聲을 떨쳐왔다.

더우기 麗末의 國勢는 우리 先祖들의 掌中에서 處理되왔다.

中祖 諱 彥脩께서는 平城府院君을 封하셨고 그의 長子 成味께서는 京西都巡問使로 出發하여 侵入하는 倭寇를 到處에서 殫멸하였으며 특히 荒山大捷에서는 副元帥로 大勲을 세우셨고 忠簡公이란 諡號를 받으셨다.

次子에 諱 堅味께서는 平原府院君을 封하여 西海道助戰元帥을 歷任하고 門下侍中 政房提調를 겸임하여 모든 國事를 總括處理하시든 執政大臣으로 계시다가 崔瑩·李成柱의 一派에게 殺害되었다.

셋째 아드님 諱 齊味께서는 文科에 及第하여 開城判尹을 지내시고 冠山君에 봉하였으나 仲兄 平原君이 禍을 당하시든 날 같이 禍을 입으셨다. 이분이 바로 우리 定平君派의 所蒙祖이시다.

四子에 諱 世味께서는 左僕射을 지내시다가 兆陽君에 封하였다.

이분들 外에도 많은 林氏들이 朝野에서 顯職을 잡고 活躍하시다가 李成柱의 謀叛이 시작될 무렵 前無後無한 酷禍을 當하고 九死一生으로 生命을 保存한 子孫들은 深山窮谷으로 島嶼海邊으로 숨어 살아 왔다. 祖上도 숨기고 몸도 숨기고 일가 親戚도 숨겨온지 五百年이 지났다.

너무도 寂寞하고 외로움을 더 이상 참고 지낼 수 없기에 家牒과 家乘의 短篇을 수집, 우리 判尹公後孫 定平君派의 派譜를 編修하여 다음 世代에 물려주기로 하였다.

몇十年 동안 留意하여 資料를 수집하려 하였으나 奪權한 李朝에서 애써 湮滅한 바이라 風磨雨洗의 餘片을 찾을 길이 없어 傳해 오는 家乘대로 편찬하였다. 疎略하기 짝이 없으나 다음날 後孫들의 많은 補完을 企待하며 이대로 完結하기로 하였다.

이번 일에 같이 勞苦를 바친 任員들에게 깊이 感謝하며 같이 協助해주신 여러 宗親들에게 甚深한 謝意를 表하는 同時에 定平君一派의 門中에 더욱 빛나는 盛運이 깃들기를 祈願하며 이만 刊辭에 代하는 바이다.

一九八三年 癸亥 至月 日

彭城林氏 大同譜序

我林之系彭城 自唐翰林學士諱八及始學士公之東來也 家于湖右之彭城 仍以爲貫彭城今平澤之古號也 後裔蕃衍敦居八方 別爲貫者數十家 若蔚珍醴泉扶安兆陽善山鎮川其他諸家 皆以勲爵守封也 自學士公以後年計者踰數千百以世計者過四千歷羅麗逮我 朝鍾鼎瑚璉後先相望 炳烺國史輝耀家牒在京望于京 在鄉望于鄉 蔚然爲東方諸姓 此莫非祖先積善之餘蔭也第其派分既久各譜其譜 生死哀慶木相及幾乎塗人此吾宗之所慨恨也 何幸近年大同修譜之議倡自宗中創立宗約所於京城於是遠近不謀而同辭親疎齊心而合力始於辛酉五月而越三年甲子十三道各派單帖聯續畢至於以見遠者近疎者親如木之千條萬葉本于一根 水之沱潛別流同于一源 百世本支秩然有條而不紊久爲林氏之大譜而一宗之大慶也雖然所貴乎修譜者豈不以 尊祖而敬宗乎尊敬之亶在乎聿修而篤恩也 凡我同譜之人雖居住之或京或鄉老少之相面者 一按譜而可以瞭如指掌矣 程子所謂收宗族厚風俗 蘇氏所謂孝悌之心油然而生者其在斯乎 由是而各正其倫念我先德奉我祖訓上不負均視之義下不謬路人之歎則雖世降俗渝利欲紛拏而不失世守 不墜家聲而將見萬人而一心千里而一室 千萬歲而如一日庶無愧於同譜矣 相熙猥以無似忝在相役獲詳始末 乃以諸宗之命 僭置一言於卷首云爾

甲子 四月 日

忠貞公 十七世孫 相

熙 謹書

우리 林씨 世系가 평성이니 당나라로 부터 온 한림학사의 이름은 팔급이니 학사공 동래로
 시조가 되었다 집을 호우 平성에 그대로 삼므로 본관을 平성으로 하였으니 지금 平康의 옛
 이름이 다 후손이 번연하여 팔도에 산거하여 별로 본관을 삼으니 수집십이 되니 을진, 제천
 부안, 조양, 선산, 진천과 같은이다 기라 여러집이 모두 忠작수 봉하였다 학사공 이후 해
 를 헤아리면 수천백세를 넘게 된다 四천년을 지나 내려와 이조 정치가 시작된 후 먼저 국
 사나 가첩에 빛나 서울에 있어서 서울을 보고 시골에 있어서 시골을 바라보면 동방에서 여
 러 성씨됨이 선조의 적선의 여경이 아님이 없다 아무튼 그과와 본적이 이미 오래동안 각 보
 그보에 생사 애경에 얼마 미치지 못하였다 사람이 적어 우리 일가가 개간하는 바다 어찌
 근년에 대동보를 수보하는 의론이 종종에 창결하여 서울에 종약소를 창립하니 이에 원근이
 상의 없이도 친소를 말하고 같은 마음으로 합력하여 신유년 오월에 시작하여 넘어 삼년 갑
 자에 십삼도 각과의 단첩이 연속하고 마침내 멀게 본자나 근소하게 본자가 마치 나무친가
 지만입사커가 한백리에서 근본되듯 물의 쟁김이 별로 흘러 한 근원에 함께 하니 百世라도
 근본과 가지가 질서있게 가지가 있어 문란치 않음과 같이 林씨의 대동보는 한 종중의 큰
 경사다 비록 그러나 귀한바 수보라는 것은 어찌 조상을 높이고 일가를 공경함이 아니라 높
 이고 공경함을 오로지 크게 닦고 생각을 돈독하게 함에 있도다 대범 우리 동보하는 사람은
 비록 거주가 후 서울이거나 시골이거나 노소의 상면함이 하나의 인을 세워 보를 닦는 것이
 가히 확실보이며 손가락이나 손바닥 같도다 정자가 소위 일가를 걸우고 풍속을 두렵게
 한다고 하고 소씨가 이른바 효제의 마음이 유연히 난다는 것이 이에 있다 이로 말미아마
 각기 그 윤리를 바르게 하고 나의 선조의 덕을 생각하고 나의 조상 유희를 받들어 위로고
 루 보는 뜻을 갖지 않고 아쾌로 걸가는 사람같이 보는 것을 더하지 않으면 비록 세상이 가
 고 풍속에 젖어 이욕과 분쟁의 불미함이 세상을 지켜도 우리 林씨 집에는 더러지지 않아 장
 차 만인이라도 한마음 천리라도 한집 천만세라도 하듯같이 역여지는 것이 이 동보함이 부

그림이 없겠다 상의 두려워함은 서로 말어 일하는 것이 없어서 다만 상세히 처음과 끝을 잘 견우면 여러 일가의 명령대로 잠깐 한말을 책머리에 두고져 함이다

갑자 사월 일

충정공 심철세손 상

희삼가봄

甲申舊譜序

學士公出自中國 居于平澤之龍浦 平之有林 盖自此始而 年代莫詳 昭穆不明則 子孫之慨恨爲如何哉 至若忠貞公父子 大顯麗季 爲始名臣 訓鍊公始仕 我朝克著勲名 簪組綿延 家聲烜赫 振威公之疾惡剛陽 三清堂之謝絕名利 寸草公之篤孝雅操 連三世實行 偉乎奇矣 錦湖 松坡 觀海 三父子節義文章 史記之譜諸之非 後孫之所 兵使公之奮忠敵愾 監役公之出天純孝 克篤前烈垂裕後昆 人知有我林者 孰非六七公 清名直節之所賜也 將軍慶業精忠大節 昭揭宇宙 炳烺日月 當與漢之壽亭侯 宋之岳武穆聯翩

崇禎紀元後三甲申 秋七月 下浣

從兄 慶薰 宗兄 燁氏 宗丈 泰岳

後孫 興 烈 謹書

학사공이 증극으로 부러 나와서 평택용포리에 살았으니 평택林氏는 대개 이로부러 시작 되었으나 연대가 미상하고 소목이 불명하니 자손의 개한이 어찌할가요 충정공부자같은이

는 고려말에 크게 나라난 처음난 명신이요 흥천공은 벼슬을 이조에서 처음 시작하여 공
 홍명사 높은 관작이 연하여나와 가문의 명성을 높이 빛냈다 진위공의 사나운 성질 강직한
 기개라던가 삼청당의 명리를 사절함과 춘초공의 독실한 호성 맑은 지조등 연삼대로 실행한
 크게 기록함이여 금호 송파 관해 삼부자의 기록과 병사공의 발분한 충성과 적개심과 감역
 공의 하늘이 낸 수수한 호행 독실한 앞날의 열열함이 후손들에게 잘 보이는 행동이 될것이
 니 사람으로서 우리林가 있는 것을 아는 자라면 누가 六, 七명에게 맑은 이름과 곧은 절개
 를 준것이 아니냐고 할 것이다 그리고 장근 경업의 열렬한 충의 큰 절개는 밝게 우주에 나
 라나 해와 달과 같이 빛을 냈으니 마당히 옛날 중국 한나라의 수정후작과 송나라 악무무과
 같은 이들이다

승정기원후 삼감신 二一五년전 가을

칠월하순 후손중 사촌형 경 훈씨

일가형 엽씨

일가어른 래 악씨

平澤林氏 世譜重刊序

吾林之有譜已久矣 修譜之意 亦若是而已 噫吾宗雖零替不振然實三韓巨
 族也通告八域剔偽採善使我 鼻祖之孫仍靡有遺漏大同合譜誼乃宿昔之志願
 然統系綿遠派流曼行其零零鎖鎖散在域中者終末可湊合爲一兼且射屈力窮不
 可經紀今此所刊止於我 平城先祖以下而其他幾派之參入盖亦出於敦收之誼
 按譜可見也

始功于往歲孟夏訖刊于今年暮春諸有司效勞之力也譜凡六冊而終未免派譜之
禰噫其小矣雖然在昔嶺山之蘇只記高祖之後而亦名爲譜譜幾多乎哉務其實而
己凡我同譜之人本之以孝悌推之爲敦睦母失祖宗拘視之意則便是萬人而一身
千戶而一家此真個是尊祖真個是收族也自此以往吾輩所以胥誨而共勉焉者其
不在茲乎至若先世之德行節義文章勲閥備載于誌狀文字及舊譜序跋顧余愚昧
不敢復贅云爾

歲舍丙辰春三月下浣

後孫宗

鎬謹序

우리林家가 족보한지 이미 오래다 족보를 엮는 뜻도 또한 오래 되었다 슬프다 우리 일가
가 비록 여러지고 때켜 덜치지 못하였으나 그러나 실은 三한의 거족이다 팔도에 통고하여
거짓을 없애고 착함을 캐내어 우리 시조의 후손으로 하여금 그대로 대동합보에 빠짐이 있
지 않게 하고 마땅히 이것은 옛날부터 원한 것이나 통계가 멀고 파류가 떨어져 그 여러지고
매김으로 하여 팔도중에 흠어져 마침내 하나로 구합하고 겸하여 하나가 되지 못하고 또 빨치
고 굽으리는 힘이 다하여져 가히 글꼴을 잡지 못하고 이제야 증언하는 바 우리 평성선조에
끝치고 이하가 몇과가 참가해 왔으니 이것은 돈목하고 수족하는 데서 나온 수보의 인이
라고 보는 것이 옳다 중간 시작을 작년 乙未 첫 여름에 시작하여 금년 늦은 봄에 마쳤으니
이것은 여러 유사들이 수고한 효력이다 족보가 六책으로 마쳤으나 파보를 면치 못하였다
슬프다 그 적음이여 비록 그러나 옛날 미산소씨 고조이후의 족보이지만 이름은 족보라 하
였으니 이런 족보가 열마나 많겠는가 그것은 그 실상만을 힘써이다 대범 우리들 등보하는
사람은 근본 효도와 공경심이 또 돈목에 미루워 지고 조종을 진실로 보는 뜻을 잃지 말라

문득 이것은 만인이라도 일신에서 나오고 천호라도 한집에서 시작되었으니 이것은 참하나
의 높음 할아버지요 참하나의 일가 모임이다 이로부터 우리들은 크게 깨달아 함께 힘쓰는
것 그것의 이에 있지 않으나 선세의 덕행과 절의와 문장과 흥별을 갖추어 있어서는 지장
문자 및 구보서 발을 실고져하나 나의 우매가 이같으니 감히 쓸데없는 말을 두번 못하겠다

해집이 병진년 삼월하순

후손 중 호근서

林氏得姓說

夫人之得姓自古有源因其所生之地者至於吾林亦有所因殷王子比干之子諱堅
隱於長林山以林爲姓林氏之本源自此始矣事載東國氏族誌魯孔門弟子諱放官
至長山候文廟配享唐神堯時諱蘊爲蓮堂學士唐文宗時諱八及以翰林學士被讒
東來曉按皇史則自長林山姓林之後至於唐蓮堂學士源源以來然累千載之間世
代寢遠系承缺闕難可鏡考故不敢系統而以翰林學士爲東出始祖後世子孫宜其
觀感也歟

사람이姓을 갖는 것은自古로 원인이 있으니 우리 林氏도 역시 그 원인이 있는 것이다
殷나라 王子 比干의 아들님 堅이라는 분이 長林山에 숨어살으셨기에姓을 林이라 하였다
林氏의 本源은 여기에서 비롯되었으니 이 사실은 동국씨족지에 기록되어 있다 魯나라때
공자의 弟子로 林放이라는 분이 계셨으니 벼슬은 장산후를 지내시고 문묘에 배형되었다 唐
나라 신요때에 林蘊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호는 濟南으로 연당 學士라 이른다 唐나라 文宗
때에 公及은 翰林學士로 계시다 못난 무리들의 참소를 입어 동쪽으로 오셨다 다시 동국사

만약 이것의 만인이란 모든 신영에서 나오고 원후각적 한집에서 시작되었으니 이것은 참하나
의 본인이 살아야 하지 않나 의 참하나의 열가 모임이 이 세계를 이루는 것이 함께 힘써가
는 것 그것의 이 에 있지 않이나 신체의 정행과 절의의 만강과 한포를 갖춤에 있어서는 지장
문자 및 구보서 발을 실고 적하나 나의 아담이 이 길에서 쓸데 없게 나타내지 않았다

해집이 평진한 심영의 신

부수적 영역 구조

一世

彦脩

연수

號桂軒壁上三
 韓三重大臣太
 尉贊成事門下
 侍中同平章事
 平城府院君
 諡忠貞公諡法
 危身奉上曰忠
 大慮克就曰貞
 公生于

宋恭帝德祐間麗
 季有勳功入相
 出將為當世名
 臣卒于

皇明洪武間享年
 九十

配貞敬夫人金浦
 公氏父門下評

二世

子成味

성미

司馬文科壁上
 三韓三重匡靖
 大夫門下侍中
 同平章事三司
 右使上護軍
 諡忠簡公諡法
 危身奉上曰忠
 亂而不損曰簡
 公以文章知名
 當世

配貞敬夫人長興
 任氏父小府尹
 琦典客署令瑞
 生孫

墓京畿長湍郡長
 道面杜梅里元
 金谷良坐有表

三世

子尚陽

상양

入國朝折衝將
 軍知訓練觀事
 上將軍六月二
 十六日卒
 配淑夫人蔚珍張
 氏父忠清監司
 續密山君朴備
 外孫四月七日
 卒

墓在木監洞先塋
 側云而忠簡公
 墓記註金川郡
 之江陰縣木監
 洞或云平澤龍
 珠坊戊子得忠
 簡公墓碣於長
 湍金谷而上將

四世

子檐

염

贈通訓大夫司僕
 寺正行司醞署
 直長甲辰十月
 二十九日卒
 配淑人羅州羅氏
 父道康監務設
 典農寺正公彦
 孫工曹典書繼
 曾孫知瑞原郡
 事鄭淵外孫癸
 卯正月二六日
 卒

墓羅州郡羅新面
 榮山浦上松月
 里舊興龍洞右
 麓前後兆公自
 京畿松峴贅居

五世

子孝孫

효손

配蔡氏父主簿居
 安

子從直

종직

贈通政大夫兵
 曹參議行忠清
 道水軍虞侯生
 于

永樂十九年辛丑
 公三歲羅氏淑
 人下世明年直
 長公繼卒外王
 考道康公育之
 仍居羅州四月
 十二日卒

配淑人鷄林金氏
 父濟用監府錄